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2007)

서울사이버대학교

학부 안내 02-944-5000
www.iscu.ac.kr
대학원 안내 02-944-5500
grad.iscu.ac.kr

최고 교수진
최첨단 23,000m² 캠퍼스



방송국 수준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강의실



차이콥스키홀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4호선 2007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 2번 출구입니다.

정가: 5,000원



DT브랜드파워대상



2015 SUMMER
VOL.29

SCU e 이야기

e 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Seoul Cyber University • 2015 SUMMER VOL.29



차이콥스키홀에 설치된
로저스-콘솔리 겸 파이프 오르간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꿈을 향해 함께 달리자

모두가 '이미 늦은 꿈'이라 말할 때
우리는 '이제 이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있는 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페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함께' 달리겠습니다.



THE WINNER 2006년 작

contents

특별한 e-이야기

- 04 개교기념식과 장기근속 교직원 표창
- 06故 이봉수 이사장, 故 김신영 명예이사장 추도예배
- 07 제12회 신일스승상
- 08 차이콥스키 음악원과 MOU 체결
- 10 2015 교원 워크숍

더불어 e-이야기

- 12 2015 스웨덴 데이 초청 방문
- 14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대사 퇴임 환송회
- 16 러시아 작가 이리나 & 바습프 개인전
- 17 연해주오페라발레극장 감독 방문
- 18 제14기 싱가포르 하계해외탐방
- 20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연 관람
- 22 ACU 이러닝 역량강화 교육훈련

당신의 e-이야기

- 24 해외명사 인터뷰
- 26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 특강
- 28 영락노인복지요양원 민복기 원장
- 30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 교수 인터뷰
- 32 이노디자인 김영세 대표 특강
- 34 이시형 박사 특강

우리의 e-이야기

- 36 WAVE 사회봉사단 활동(희망TV & 다문화 가정 촬영)
- 38 제6대 총동문회장 취임
- 39 웹 접근성 품질 재인증 획득
- 40 복지시설경영전공 경쟁력 사업 특강
- 41 이우경 교수 출판기념 특강
- 42 방글라데시 정부인사 방문
- 43 고려대 염재호 총장 일행 방문
- 44 지역모임 소식
- 46 단신 뉴스
- 49 교수동정

서울사이버대학교 2015년 SUMMER VOL.29

발행일 2015년 8월
발행처 서울사이버대학교
편집주간 차명희 교수
편집위원 김영민, 박병석, 정상원, 한수미, 홍선관 교수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255
 感커뮤니케이션 (02)733-2878



2015년 5월 16일

개교기념식
신일중고등학교·서울사이버대학교

추도예배
설립자 故 이봉수 이사장 15주기
故 김신영 명예이사장 6주기

시 상 식
제 12 회 신일 스승 상

학교법인 신일학원

역사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참스승을 기리다!



이상균 이사장에게 근속상을 수여받는 허묘연 총장



개교 기념사를 하는 신일고등학교 최경호 교장

지난 5월 16일(토)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역사에 있어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기념비적인 날이었다. 제49주년 신일중·고등학교, 제15주년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개교 기념식을 시작으로 이들의 모태인 신일학원을 설립한 故 이봉수 이사장과 故 김신영 명예이사장의 추도예배, 그리고 그들의 교육의 뜻을 기린 신일스승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을 실천하고 이들과 함께한 참스승을 기린 특별한 하루를 따라가 보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5주년 기념식 & 10년 근속상 시상

첫 번째로 열린 행사는 학교법인 신일학원 신일중고등학교의 개교 49주년,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개교 15주년 기념식이었다. 이날 행사에서 신일고등학교 최경호 교장은 기념사를 통해 “반세기 동안 이어져온 신일의 전통이 새로운 100년을 향한 밑거름이 되어 우리 모두 당당하게 도전하는 신일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어 10년 근속 교직원에 대한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이 시상한 이날 수여식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허묘연 총장, 경영학과 고윤승 교수, 재무회계팀 오진환 부처장, 총무팀 이상권 계장, 정보지원센터 권상민 주임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동료 교직원들은 허묘연 총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게 10년 근속에 대한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했다.



근속상 수상자들 (아래 좌측부터) 기획조정실 오진환 부처장, 허묘연 총장, 정보지원센터 권상민 주임, 총무처 이상권 계장, 경영학과 고윤승 교수

追悼禮拜 故九里李奉守理事長15周忌 故金信英名譽理事長6周忌

2015年5月16日 △ 學校法人信一學園



해방교회 박영국 목사의 추도예배 설교



추도예배에 참석한 이세웅 명예이사장 내외와 이상균 이사장 내외



추모가를 부르는 이화여대 신지화 교수

미래를 위해 사셨던 분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설립자故 이봉수 이사장과 故 김신영 명예이사장의 추도예배

다음은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설립자인故 이봉수 이사장과故 김신영 명예이사장의 추도예배이다. 신일고등학교 교감 신병철 장로의 인도로 진행된 이번 추도예배에서 이세웅 명예이사장과 이상균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신일학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이자 해방교회 박영국 담임 목사는 '미래를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학교법인 신일학원을 통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두 분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자"고 강조하였다. 이화여대 신지화 교수의 추모가와 교목실장 박중규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된 이날 추도예배에서 참석자들은 두 분의 깊은 뜻을 받들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였다.



축사를 하는 신일스승상위원회 정원식 위원장



대표로 수상 소감을 밝힌 인천마전초등학교 임미향 교사

설립자故 이봉수 이사장의 뜻을 기린 제12회 신일스승상 시상식 개최

이날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제12회 신일스승상 시상식이다. '신일스승상'은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사들에 대한 존경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신일중고등학교 설립자인故 이봉수 신일학원 이사장의 뜻을 기려 2002년에 제정된 상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마전초등학교(인천) 임미향 교사, 용마초등학교(인천) 전재호 교사, 온곡중학교(서울) 성낙주 교사, 영덕중학교(수원) 임성숙 교사, 한국문화영상고(동두천) 맹철호 교사, 경기여고(서울) 박경구 교사, 명혜학교(안산) 김천우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일스승상위원회 위원장이자 국무총리를 역임한 신일학원 정원식 이사는 축사를 통해 "학교법인 신일학원은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숨은 노력을 발굴하여 세상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참 스승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선생님들 곁에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일스승상위원회 위원들과 신일스승상 수상자들

클래식 예술의 본고장에서 인정받다

- 차이콥스키 음악원(Moscow P.I. Tchaikovsky Conservatory)과 국제 콩쿨 수상자 협회와 MOU 체결
-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학과, 최첨단 교육방식인 실시간 원격 레슨을 9월 새학기부터 시작



최고급 시설과 장비를 갖춘 스타인웨이(Steinway & Sons) 피아노



서울사이버대학교 대외협력실장 차명희 박사와 차이콥스키 음악원 Alexander Sokolov 총장 간의 협약식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5월 17일(일)에서 21일(목)까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차이콥스키 음악원 및 러시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쿨 수상자 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향후 음악 교육 관련 교류 및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번 방문은 이세웅 명예이사장, 차명희 대외협력실장 및 나정혜 교수가 동행하여 차이콥스키 음악원 알렉산더 소코로프 총장을 만나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에서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것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학과가 실시하고 있는 실시간 원격 레슨이다. 음악학과는 피아노의 음색과 페달의 움직임까지 세밀하게 전달하는 디지털 자동연주 피아노를 도입하여 장소에 구애없이 타건(건반악기의 건반을 두드림)의 실시간 전송을 실현시켜 실시간 원격 레슨이라는 최첨단 교육방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모스크바로 유학가지 않아도 차이콥스키 음악원의 세계 최고의 교수진에게 직접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원격 레슨 수업은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시작되며 러시아와의 시차로 인해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에 수업이 진행된다.



차이콥스키 음악원과의 원격 수업 모습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 앞에서 (좌측부터) 이세웅 명예이사장, Alexander Sokolov 총장, Helen Khalipova 교수, 피아노학과 나정혜 교수, Vladimir Sukhanov 부총장

e-교육의 브레인이 한자리에 모이다

- 강원도 속초에서 1박 2일간 2015년 교원 워크숍 개최
- 글로벌 Top 대학 수립을 위한 교원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

지난 4월 30(목)부터 5월 1일(금)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설악 컨싱턴스타호텔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원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허묘연 총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교원들은 한 자리에 모여 교육환경 변화, ACU Project 공유 및 SCU Global 전략 등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글로벌 Top 대학 진입을 위한 교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허묘연 총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원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1박 2일 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 교원들이 더욱 단합할 수 있었으면 하고, 또한 ‘SCU VISION



교원 세미나 현장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발표하는 이은주 부총장

2022, 글로벌 Top 대학 진입’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세미나 후 이어진 만찬 행사에서 참석 교원들은 함께 식사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소속감을 높이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참석 교원들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미래를 향하는 교육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최고의 사이버대학을 넘어 최고의 대학으로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교원 단체 기념 촬영



서울사이버대학교, 스웨덴 데이 후원

- 스웨덴 국경일을 기념한 스웨덴 데이에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장 큰 규모로 후원
- 이상균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사장 겸 한서문화예술협회 회장과 대학 관계자 참석

스톡홀름 왕복항공권 경품 당첨자와 이상균 이사장 그리고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대사

지난 6월 3일(수)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는 매년 스웨덴 국경일(6월 6일)을 기념해 진행되는 스웨덴 데이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상균 이사장 겸 한서문화협회 회장, 허묘연 총장 등 서울사이버대학교 관계자들을 비롯,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 ‘볼보(Volvo)’, 보드카 브랜드 ‘업솔루트(Absolut)’ 등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주제인 ‘창의적인 스웨덴(Creative Sweden)’에 걸맞게 이날 행사에는 스웨덴 이미지를 활용한 미디어 작품, 스웨덴 전통 공연 등이 마련됐다.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대사는 축사를 통해 “스웨덴과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80여 개의 스웨덴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신뢰받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비롯한 참석 기업들이 후원한 다양한 경품행사였다. 특히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상균 이사장은 스웨덴 스톡홀름 왕복 항공권이라는 최고가 경품을 개인적으로 내놓아 참석자들의 큰 박수 갈채를 받았으며, 이에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는 ‘영원한 친구, 서울사이버대학교’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주최측과 인사를 하고 있는 허묘연 총장



스웨덴 전통 공연 모습



스웨덴 전통 공연단과 허묘연 총장을 비롯한 서울사이버대 교직원들과의 기념 촬영



환송회를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

Good Bye & Good Luck! Our Good Friend, Danielsson

- 한서문화예술협회 & 서울사이버대학교, 주한 스웨덴대사 환송회 주최
- 문화예술계 인사 및 각국 대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한서문화예술협회(회장 이상균)는 지난 6월 17일(수)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 퇴임 환송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찰스 해이(Charles Hay) 주한 영국대사, 이상균 한서문화예술협회 회장겸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사장, 허모연 한서문화예술협회 부회장,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박선주 예술의 전당 후원회장, 최태지 국립발레단 명예예술감독,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 & 툄치 쇼크멘 부부 그리고 영화배우 안성기, 강수연 등 문화예술계 인사 및 각국 대사들이 참석하여 환송회를 함께하였다.



기념사를 하는 다니엘손 주한스웨덴대사



Tunc Sökmen, 허모연 총장,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배우 안성기, 허모연 총장, 배우 강수연

식전 가든 파티를 마친 후 본 행사의 호스트를 맡은 이상균 한서문화예술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행사명에 쓰인 'Farewell'을 언급하며 "다니엘손 대사님은 지난 4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스웨덴이 기존의 가까운 나라에서 이제 이웃나라처럼 느끼게 된 것은 오롯이 그의 역할이었다"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다니엘손 대사 또한 답사를 통해 "문화는 기적을 일으키며 한국은 몇세기에 걸친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통해 그러한 기적을 만들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참석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그들의 분야인 발레, 음악, 영화의 훌륭함을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예술에 취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해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만찬 후에는 감사패 전달식, 메조 소프라노 양송미 서울대 교수의 축가가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기념촬영을 통해 참석자들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특히 다니엘손 대사는 행사가 끝난 뒤에도 일일이 참석자들을 배웅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작품 앞에서 허묘연 총장과 Irina Miklushevs Kaia 작가

러시아 미술의 정취를 만끽하다

• 서울사이버대, 한-러 문화교류 위해 러시아 화가 이리나&바습프 개인전 주최

서울사이버대학교와 러시아 극동주립대학교(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가 공동 주최하고, 한러문화 예술협회가 후원한 러시아 미술가 이리나&바습프의 개인전 기념식이 지난 5월 18일(목)에서 23일(화)까지 인사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허묘연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사, 주한러시아대사관 공보실장 등 러시아 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에서 “두 분 작가의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 미술교류가 한층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리나 미클루셰프스카야의 그림은 대다수가 러시아 풍경이다. 15~25차례 붓질을 하는 고전적인 러시아 수채화 기법으로 그려 러시아 특유의 정취를 담아냈다. 수채화지만 여러 번 덧칠해 색조가 깊다. 그리고 함께 참여한 바습프의 그림은 러시아 대사관에 전시될 정도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축사를 하는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리나 작가와 서울사이버대 교수들과의 기념촬영

현대적 극장 모델의 기준을 세운 연해주오페라발레극장

• 세르게이 사모도브 연해주오페라발레극장 감독,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

또 한명의 유명 문화예술인사가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찾았다. 바로 현대적 극장 모델의 기준을 세웠다고 평가받고 있는 연해주오페라발레극장(State Primorsky Opera and Ballet Theatre)의 세르게이 사모도브 감독이 지난 5월 27일(수) 본교를 방문한 것이다.

이번 방문은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사를 겸하고 있는 허묘연 총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허묘연 총장은 방문 기간 동안 세르게이 감독에게 서울아트센터, 국립발레단 등 문화예술 단체 최고 책임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한국과 러시아 문화 교류 발전에 세르게이 감독의 관심을 부탁하였다.

귀국하기 전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찾아 허묘연 총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세르게이 감독은 “한국의 문화시설과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육시설에 감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방문 기간 동안 깊은 환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연해주오페라발레극장은 2013년 9월 개관한 최신식 오페라발레극장이다. 7층짜리 유리로 된 웅장한 외관에 2천명의 관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2개의 홀이 있고, 공연을 위한 최고의 기술장치와 음향시스템을 갖추어 또 하나의 러시아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연해주오페라발레극장 전경



(좌측 두번째부터) Sergey Samodov 연해주오페라발레극장 감독, 허묘연 총장, 문화예술경영학과 이의신 교수

싱가포르에서 펼쳐진 제14기 서울사이버대 하계 해외탐방



싱가포르 시내 전경



싱가포르의 상징 머라이언 동상에서



인도네시아 바탐섬 불교사원에서

-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를 방문한 SCU 하계 해외탐방단
- 3박 5일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바탐 현지의 문화 체험 실시

우리 대학은 지난 4월 29일(수)부터 5월 3일(일)까지 3박 5일 간 제14기 하계해외탐방을 실시하였다. 재학생 및 교직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이번 탐방단은 사회복지전공 박기훈 교수의 인솔 하에 해상 동서교통의 중심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바탐 등을 방문하여 동남아 현지의 문화를 경험하였다.



둘째 날인 4월 30일부터 본격적인 탐방이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싱가포르 최대의 식물원 보타닉 가든이다. 1859년 개원한 보타닉 가든은 난의 종류만 2천 종이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국립 난초공원이다. 이어 탐방단은 오차드 가든, 주룽새 공원, 가든 바이 더 베이 등 부존 자원이 없는 싱가포르가 어떻게 지금의 부국이 되었는지에 대해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다. 다음날은 인도네시아 바탐섬으로 향하였다. 그곳에서 불교사원과 이슬람 문화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온 탐방단은 이곳의 상징물 머라이언상을 보면서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주어진 환경에 정부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이를 투명하게 실천하는 지, 그리고 성숙한 국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게 된 것이다. 이렇듯 우리 대학은 매 학기 실시하는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시각과 세계화 시대에서 요구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있다.



박기훈 교수의 인솔 하에 진행된 제14기 하계해외탐방



여성 참가자들만 모여서 기념 촬영



SCU가 후원하고 미8군 장병 가족이 함께 한 '백조의 호수' 공연

- 서울사이버대학교, 6·25 65주년을 기념해 미8군 장병 가족 초청
-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연에 미군 가족 300여명 초청 단체 관람
- 문화예술을 통해 양국의 친교를 더욱 돈독히 하는 민간외교활동이 빛나



Tommy R. Mize 주한 미8군 참모장 가족과 미8군 사령관 부인 Mary Sue Champoux 여사, 국립발레단 이사인 허묘연 총장, 정상원 교수, 이세웅 국립발레단 명예이사장



백조의 호수 공연 현장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과 미8군 자녀들

서울사이버대학교, 미8군 장병 가족에게 문화를 선물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6월 28일(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열린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연에 미8군 장병 가족 300여명을 초청하였다. 이번 초청은 타지에서 생활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미군 가족들을 위한 이벤트이자 한국과 미국 간의 친교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공연에는 버나드 S. 샴포우 사령관 부인인 메리 수 샴포우 여사를 비롯한 미군 관계자들과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과 그의 남편이자 이번 공연에 게스트 코치를 맡은 톤치 소크멘, 그리고 이번 초청을 기획한 이세웅 국립발레단 명예이사장과 허묘연 총장 등이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공연 전 열린 리셉션에서 메리 수 샴포우 여사는 “미군 가족들을 위해 훌륭한 공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처음 발레를 접하는 미군 자녀들에게 이번 공연은 또 다른 꿈을 꾸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백조의 호수' 공연은 6월 한 달 동안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발레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했으며, 러시아 안무가 '유리 그리가로비치'가 안무한 작품에 국립발레단만의 표현이 담겨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최적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육 파트너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러닝 관계자 서울에서 역량강화 훈련 실시
- 5월 28~29일, 양일간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하며 첨단 이러닝 교육 체험



CLMV 회원국 참가자 회의 모습

서울사이버대학교 ACU 프로젝트 사무국은 지난 5월 28일(목)에서 6월 11일(목)까지 CLMV(초기회원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러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서울사이버대학교와 VABIEN II Education Center에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초기 회원국에서 온 이러닝 콘텐츠 개발 관련 실무자(개발 교수자, 교수설계자, 멀티미디어 개발자, 스튜디오 엔지니어, 어드민)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은 초기 회원대학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한 최적의 콘텐츠 개발과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개발 핵심 인력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공통과정으로 교수 및 동기 전략, 메시지 디자인과 이벤트 디자인, 팀 활동을 통한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등을 배우고, 각 직무 별로 개별 과정을 수료하였다. 특히 교육 참가자들은 이틀간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하여 첨단 방송 스튜디오, 교수 수업 시연 등 최신의 이러닝 교육을 몸소 체험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ACU 이러닝 역량강화 교육훈련 현장



이러닝 역량강화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ACU 프로젝트 사무국 박소화 부국장

15주년

우리가 만든
우리가 만들

개교 15주년,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여름의 뜨거운 태양에 비견될
서사대인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열정 스토리가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서사대인들의 뜨거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주축이 되어 향후 아시아와 유럽의 대학들이 TEIN 망을 통해 질 높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아시아와 유럽의 이러닝 교육을 잇는 다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럽연합집행위 국제협력개발부 선임행정관
렐리스 브라간자 (Lellis Braganza) 박사

- 유럽연합집행위 유라시아 초고속 학술연구망(TEIN) 사업책임자 본교 방문
- 본교가 주축이 되어 아시아와 유럽이 자유롭게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기를 기대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Europe Aid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Europe Aid는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기능을 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원조를 담당하는 부처인 국제협력개발부(Directorate 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를 뜻합니다. 유럽지역을 포함해 아프리카, 캐리비안, 아시아 지역 등에 산재해 있는 최빈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원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유라시아 초고속 학술연구망(TEIN: Trans-Eurasian Information Network)사업의 유럽 측 지원업무를 맡고 계신데 TEIN 망은 어떤 사업인가요?

TEIN 사업은 2000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한국정부가 개도국의 정보격차를 경감하고 정보화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연구목적용 초고속 통신망사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이 제안을 채택하여 2001년 1차로 한국과 프랑스 간 연구망이 개통된 이래, 통신망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현재 기기급으로 발전하였으며 참여국도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19개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4개 유럽국가가 참여하는 대표적 정보통신분야 국제협력사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한국에 자주 방문하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 어떤 계기로 방문하셨나요?

TEIN관련 회의로도 왔지만, 제 조카가 수원에서 영어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한국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3년 8월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당시 TEIN회의참석차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짬을 내어 방문했는데 뛰어난 인프라 시설과 정보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전문인력들의 역량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평소 TEIN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부가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방문을 통해 이러닝이 훌륭한 사업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번에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TEIN 사업에 있어 우리 대학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제가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한 이래로 지난 1년 반 동안, 일련의 TEIN회의석상에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러닝 현황과 수요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준은 각기 다르지만 각기 다양한 이러닝 사업을 하고 있었고 많은 회원국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러닝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고의 온라인 고등교육기관인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회원국들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어떻게 이러닝 사업을 추진할지 방향성을 제안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권구순 교수와 렐리스 브라간자 박사

앞으로도 TEIN 이러닝사업의 발전에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히려 부탁드려야지요. 아무쪼록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주축이 되어 회원국들의 이러닝 역량을 강화시키고 향후 TEIN망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의 대학들이 질 높은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시기가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두 행복하세요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과 함께 한 입학설명회

지난 7월 4일(토) 세계적인 발레리나이자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이하 강수진 단장)이 우리 대학을 찾아 2015학년도 신·편입생 지원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목표를 이루려는 부단한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자신처럼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그녀의 열정적인 인생스토리가 지금 시작된다.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입학설명회에 이어 시작된 특강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강수진 단장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다. "처음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제의를 받았을 때는 두려움이 많아 거절을 했었어요. 행정업무를 본다는 것에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생긴 인간관계가 곧 행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따뜻한 조언, 그리고 살면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에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새로운 도전에 머뭇거렸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복습'과 '예습'으로 스스로를 단련하세요

본격적인 강연을 하면서 강수진 단장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특히 '공부'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내놓았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앉아서 하는 공부뿐 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많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아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행복해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찾게 되면 끊임 없이 '복습'과 '예습'으로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복습을 지겹다고 여기는데 복습이야말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특강 전 진행된 1:1 입학상담회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매일 빠짐없이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강수진 단장. 이러한 그녀의 근성이 있었기에 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후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때 당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부상 때문에 서있기도 힘들 때 공연을 한 적도 많은데 그 이유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This is the Moment'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라운지에서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과 허묘연 총장



복지,
특히 노인복지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열정과 사랑입니다.

영락노인전문요양원 민복기 원장

복지란 열정과 사랑으로 완성되는 결정체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매년 국제디자인대전에 출품한 교수 초대전 전시작을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고 있다.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교수님들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 올해는 하남시에 위치한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이 선정되어 소중한 작품들을 기증받았다. 이에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원장이자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 겸임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는 민복기 원장을 만나 감사인사와 함께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요양원에 비치된 국제디자인대전 교수 초대전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교수작품) 출품 전시작

서울사이버대학교와의 인연

제가 2009년부터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 겸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저희 요양원도 노인복지전공과 MOU를 체결하여 1년에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오랫동안 저희 요양원을 배려해 주시는 고마운 파트너입니다.

노인복지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복지, 특히 노인복지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열정과 사랑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4~50대 제2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정과 함께 순수하게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분명 금전보다 더 행복한 보람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감사의 인사말

다시 한 번 저희 요양원을 추천해 주신 권금주 교수님, 그리고 기꺼이 소중한 작품을 기증해 주신 이향아 교수님 이하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늘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갚아나가기 위해 저 자신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교수작품 출품 전시작



국제디자인대전에 출품한 교수 작품들

연구중심대학, SCU 그 명성을 이어가다!

한국연구재단은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 대표 연구관리전문기관이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연구 지원 사업에 꾸준히 선정되어왔다. 그리고 올해는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와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의 연구가 선정되어 다시 한 번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으로 진행될 그들의 연구과제에 대해 살펴 보았다.



“운송부문의 물류안전 활동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미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

공통 질문

- Q1 : 연구동기 및 목적
- Q2 : 주요 연구방법에 대해

- ① 현재 우리 사회는 교통사고, 선박, 침몰, 물류센터 화재 등으로 물류안전사고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물류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연구하여 물류사고를 줄이고 물류 고유의 목적인 물류비 절감과 물류서비스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② 본 연구에서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운송부문의 물류안전 활동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이미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물류기업의 물류안전 실천 확산과 물류안전 성과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행동(NSSI)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

- ① 청소년기 자해 행동은 성인기 자살 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자해행동(NSSI)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위한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합니다.
- ② 지난 6개월간 비자살성 자해를 빈번하게 보이는 청소년 80명을 무작위로 치료집단과 대기자 집단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치료 프로그램이 구성되면 1주일에 2회씩 총 18회기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변화 추이를 세밀히 관찰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세상을 바꾸는 인재, 퍼플피플이 되자!

- 이노디자인 김영세 대표, '사람에 대한 관심, DESIGN'이라는 주제로 특강 개최
- '퍼플피플'이라는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문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이노디자인 김영세 대표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한 헤드폰 INNOWave과 블루투스 스피커 INNOFlask



특강에 참석한 신일중고 학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도 ‘모범생’이 아닌 ‘모험생’이 되어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지성인 계발을 위한 예술(藝術)과 인문(人文)의 콜라보 강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1일(목)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사람에 대한 관심, DESIGN'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는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은 물론, 신일중고 학생들까지 참여하여 김영세 대표의 디자인철학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영세 대표는 이번 특강에서 “직업인을 단순히 ‘화이트컬러’와 ‘블루컬러’로 구분하는 것은 너무 올드하다”면서 ‘퍼플피플’이라는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유튜브의 스티브 첸 등 21세기를 이끌어 가고 있는 새로운 리더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로 혁신을 만들어 낸 퍼플피플이다”며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도 ‘모범생’이 아닌 ‘모험생’이 되어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강조해 큰 박수를 받았다.



(좌측 두번째부터) 이원형 입학처장, 허모연 총장, 김영세 대표, 구국모 입학지원실장(우측 첫번째)

여든 소년 나이 되다

이시형 박사의
작품집에서 제목 발췌

- 미술가로 변신한 이시형 박사, '예술작업의 뇌과학'이라는 주제로 특강 개최
- 자신의 문인화를 포함한 다양한 예술 작품(Art Work)을 정신학적으로 분석

7월 8일(수) 본교 차이콥스키홀에서 우리 대학 상담심리학과·가족상담학과 석좌교수이자 뇌 정신의학 최고 권위자인 이시형 박사가 '예술작업의 뇌과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현재 이시형 박사는 문인화 미술가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그는 "여든 살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제가 가장 못하는 것에 도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미술이다"라면서 그 시작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 그가 4번의 전시회를 가질 정도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진정성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림의 종류에는 '잘 그린 그림'과 '좋은 그림'이

있다. 저의 그림은 바로 '좋은 그림'이라고 평가 받는다"라며 전시회에 걸린 모든 작품이 완판된 것을 언급하면서 "좋은 그림을 봤을 때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운 엄마, 고향 그리고 친구 등 자신이 잊고 있었던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라면서 본능을 관장하는 편도체, 고급스러운 감정을 관리하는 전두엽, 기억의 저장창고 측두엽 등 뇌과학과 연관시켜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특강 전후로 해서 1:1 입학상담과 심리상담학부 입학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



특강 전 라운지에서 허묘연 총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이시형 박사

인생미술학

"여든 살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가장 못하는 것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미술입니다"



작품집 '여든 소년 나이 되다'속의 문인화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이시형 박사



특강을 듣고 있는 참석자들

WAVE 사회봉사단이 전하는 희망 선물세트

- 서울사이버대 WAVE 사회봉사단, 굿피플과 함께 '희망TV SBS' 참여
- 배냇저고리, 인형과 동화책, 조각 담요 등을 담은 희망박스 선물세트 제작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사회봉사단은 매년 굿피플과 함께 희망 TV SBS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 5월 15일(금) 올림픽공원에서 교직원과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 30여 명이 아프리카 신생아를 위한 희망박스 선물세트를 제작하였다. 희망박스에는 아프리카 신생아를 위한 배냇저고리, 아기들의 감성발달을 도울 인형과 동화책, 신생아의 필수품인 미니 조각담요까지 담게 된다. 봉사단은 아침부터 오후 늦게 까지 서툰 바느질이지만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물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한편 희망TV SBS는 지구촌 곳곳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기 위해 1997년 <기아 체험 24시간>으로 시작해, 2006년부터 <희망TV SBS>라는 이름으로 매년 소외계층 어린이와 아프리카 및 제3세계 빈곤 국가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Brief Interview 전광호 학생처장

"가르치고 기른다는 교육의 본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봉사활동은 강의실에서 배우는 공부만큼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다 큰 안목을 가지고 이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희망TV SBS에 참여한 서울사이버대 WAVE 사회봉사단



참여 가족들과 함께 단체 기념 촬영

가족의 소중한함을 카메라에 담다

-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촬영 봉사 실시
- 강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총 열 일곱 가정 촬영에 참여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봉사단은 지난 4월 11일 (토) A동 5층 스튜디오에서 다문화가족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강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해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된 이번 촬영은 총 열 일곱 다문화 가정이 참여하였다. 봉사단의 메이크업과 헤어 재능나눔으로 한껏 멋을 낸 참여 가족들은 포토그래퍼 이남운씨(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졸. 2010)의 카메라 앞에 서서 저마다의 포즈로 뜻 깊은 추억의 시간을 만들었다. 이번 촬영의 의의에 대해 전광호 학생처장은 "가족의 소중한함과 가족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봉사단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제6대 총동문회 회장 정오동 동문

총동문회 창립 10주년 함께 새로이 도약합시다!

- 제6대 총동문회 회장으로 정오동 동문(경영학과, 2004) 취임
- 2만 5천여 동문들의 중심 네트워크로서 새로이 도약할 것을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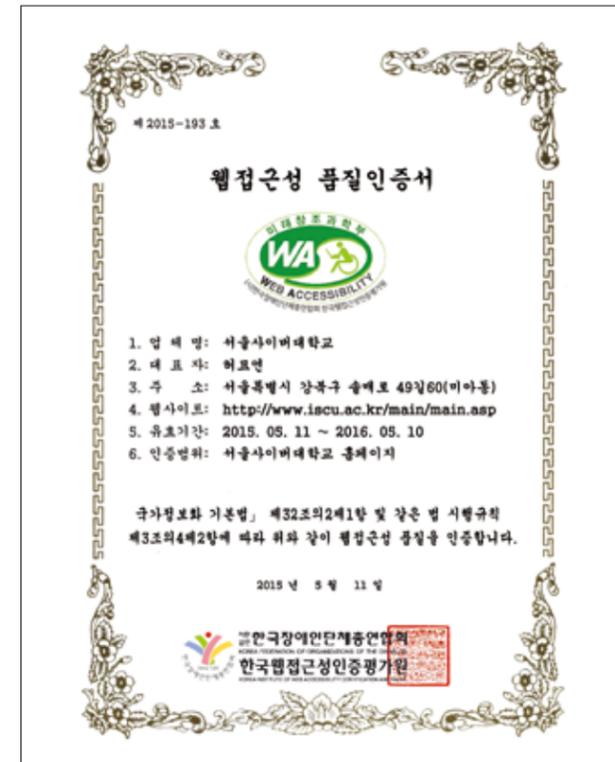
지난 5월 9일(토)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취임식이 있었다. 이번에 제6대 총동문회 회장으로 선출된 주인공은 정오동 동문(경영학과(구 e-비즈니스과))이다. 이미 2012년 진해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하여 동창 사회 전반의 운영 경험이 있는 정오동 총동문회장은 2013년 자랑스러운 서사인상을 수상할 정도로 남다른 모교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취임 소감에서 그는 “총동문회가 창립된 지 올해로 꼭 10주년이 된다”고 말하면서 “전국 2만 5천여 동문들의 집합체이며 전국 네트워크 중심으로서 이제 총동문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총동문회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특히 정오동 총동문회장은 허묘연 총장 이하 학교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하면서 오는 10월, 동문 간의 결속을 다지는 창립 10주년 체육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어느 집단의 이익만을 쫓는 단체가 아닌 서사대인 모두를 위한 총동문회가 되기 위해 도약을 준비하는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서울사이버대,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재획득

- 전문가 심사에서 98% 이상, 사용자 심사에서 100%로 평가받아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대학홈페이지(www.iscu.ac.kr/main/main.asp)와 대학원홈페이지(grad.iscu.ac.kr)가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2015년 5월 11일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WA인증마크)를 재획득 하였다. 이번 웹접근성 인증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기준으로 1단계 전문가 심사와 2단계 사용자 심사를 통하여 준수여부를 평가했다. 전문가 심사에서는 98% 이상의 준수율로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사용자 심사는 소프트웨어 기술등급을 갖춘 장애인 전문심사위원들로부터 11개 항목에서 100% 과업을 달성하여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평가되었다. 우리 대학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해 웹과 모바일 등 멀티 디바이스에서 이용 가능한 보편적 웹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도 웹접근성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학과 경쟁력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심선경 교수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의 실제 사례 특강

- 주거복지 전문기업 (주)아키테리어금빛가람 백영학 대표 초청 특강 개최



특강 진행을 맡은 백영학 대표

사회복지학부 복지시설경영전공은 학과 경쟁력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을 초청하는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5월 23일(토)에는 (주)아키테리어금빛가람 백영학 대표를 초청해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아키테리어금빛가람은 주거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인테리어 기업이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생활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업의 목표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 수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 이상을 유지하여 고용창출도 이루고 있다. 백 대표는 “우리 회사는 주거복지 사업을 하면서도 연 200% 성장했다. 이는 ‘사회복지’와 ‘기업이익’이 절대 상반된 개념이 아님을 의미한다”며 “회사 비전과 운영전략을 잘 세워 창업하면 분명 성공할 것이고 앞으로 사회적 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특강을 수강한 학생들은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대한 중요한 팁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특별한 딸로 살아간다는 것!

-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 「아버지의 딸」 출판기념 특강
- 아버지로 인해 행복하거나 불행한 딸들의 심리탐구 에세이



BOOK 가깝고도 먼 사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심리학

출판사 : 한겨레 저자 : 이우경



참석자들에게 책 사인을 해주는 이우경 교수

지난 5월 30일(토) 상담심리학과 이우경의 교수의 새로운 저서 『아버지의 딸』 출판 기념 특강이 열렸다. 이날 특강은 상담심리학과 학생들이 150여 명 가량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심리 에세이 ‘아버지의 딸’은 딸들의 무의식 속에 여러 형태로 자리 잡은 아버지의 영향력을 관계심리학으로 풀어낸 책이다. 오래 전부터 이 책을 구상해 온 이우경 교수는 본인 스스로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다고 말한다. “서른이라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전공인 심리학을 선택하고 술을 전혀 하지 않는 남편을 배우자로 선택하고, 늘 일에 중독되어 살아온 것 모두 직간접적으로 아버지의 영향이었다”고 강조하며 본인의 경험과 정신병원에서 만났던 환자를 상담실에서 만난 내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버지에게 특별한 영향을 받은 딸’, 즉 『Father's daughter』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출판동기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물론 아내, 직장동료 등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



특강을 마치고 단체 기념 촬영

방글라데시 차관급 정부 관계자 본교 방문

- 한국의 선진 사이버교육 발전 현황을 보기 위해 본교 방문



첨단스튜디오 투어 중인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들

지난 5월 7일(목) 방글라데시 교육부, 기획부 차관급 정부 인사로 구성된 방문단이 한국의 선진 사이버대학 현황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교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방글라데시 교육부 산하 교육정보통계국(BANBEIS)이 주관하는 '방글라데시 ICT 교육센터 구축 사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본교가 선진 사이버 고등교육을 운영하는 선도기관으로 인정되어 이루어졌다.

시설 방문 중 가장 인기를 끈 곳은 단연 첨단스튜디오였다. 방문단은 방송 카메라, 크로마키, 전자칠판 등 스튜디오에 설치된 장비를 직접 시연하며 본교의 이러닝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다. 견학을 마친 뒤 방문단은 이구동성으로 선진 사이버교육의 노하우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본교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첨단스튜디오 투어 중인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들



방글라데시 정부인사 방문단 스튜디오 기념 촬영



견학을 마친 염재호 총장 일행과 허묘연 총장, 박현석 부총장(둘째 줄 좌측 첫번째)

고려대 염재호 총장과 교무위원 일행 본교 견학

- 염재호 총장과 부총장 및 교무위원, 본교의 첨단시설 벤치마킹 위해 방문



스튜디오에서 염재호 총장(좌측)

5월 27일(수)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 일행이 본교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신일중(1회)·신일고(4회) 동문이기도 한 염재호 총장이 지난번 본교를 방문해 첨단시설과 그 관리에 크게 감명을 받고 이를 동료 교수들에게 직접 소개해 주고 싶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허묘연 총장의 안내를 직접 받으며 차이콥스키홀, 강의실, 도서관, 카페테리아, 그리고 첨단 스튜디오와 한옥 구리당 등 본교의 다양한 시설들을 둘러본 총장 일

행은 '강의에서 문화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교육환경에 감탄하였다. 염재호 총장은 "처음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첨단스튜디오를 보여주려고 동료 교수님들을 데리고 왔는데 첨단 강의실은 물론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춘 것에 다시 한 번 놀랐다"면서 "이러한 무한한 투자가 있기에 지금의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있는 것 같다"며 방문 소감을 전했다.

푸른 녹음을 벗삼아 펼쳐진 우리의 e-이야기

사이버대학이면서 우리 대학만큼 지역 모임이 활성화된 곳이 있을까?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최대의 지역캠퍼스 보유와 함께 각 지역별로 모임을 만들어 오프라인에서도 학우의 정(情)을 쌓고 있다. 그리고 계절의 여왕인 5월, 푸른 녹음을 벗삼아 체육대회를 통해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다. 서울남부지역, 강원도 영동 그리고 영남지역까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우리들만의 e-이야기를 들어보자.

서울남부 지역 *안녕하십니까?* 서울남부지역모임 “춘계체육대회”

서울남부지역모임이 지난 5월 2일(토) 경기도 안양시에서 춘계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광호 학생처장이 참석한 이번 체육대회에서 참여 학우 등은 족구와 농구 등 다양한 운동경기를 통해 서로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 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학우들은 서울남부지역모임의 활성화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하였다. 한편 서울남부지역모임은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광명시 학우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모임이다.



강원영동 지역 *오랜만입니다!* 강원도 영동모임 '서사인의 밤'

신록의 계절, 5월 30일(토) 강릉시 사천면에 위치한 칸펜션에서 강원영동 지역 학생들이 모여 서사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사회복지학부 이문숙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학우들의 다양한 장기자랑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호남가' '사랑가' '동해바다 연주'를 한 김영숙 학우의 가야금 병창과 이희진 동문회장의 '마이웨이' 열창 그리고 매직타임 엔터테인먼트 대표 최석훈 학우의 '마술쇼'가 이어져 참여 학우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1박 2일간 진행된 서사인의 밤에서 학우들은 함께 식사를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고 바닷가 돌레길도 산책하면서 순간 순간을 기억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영남 지역 *반갑습니다!* 영남지역 모임 '연합체육대회'

영남지역모임은 부산학생회, 대구경북학생회, 울산포항경주학생회, 경남학생회 등 총 4개 지역 학생회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5월 30일(토) 창원시 대방동 대방체육공원 운동장에서는 이들 지역 학생 80여 명이 모여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축구와 피구 그리고 족구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하나가 된 교수와 학생들은 비가 오는 곳도 날씨도 아랑곳없이 서로를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후 시상 및 경품행사를 마친 후 참여 학생 및 교수진들은 회식을 하며 그간의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부산에서 개최될 내년 체육대회를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NEWS

교내 행사

입학설명회도 스마트하게, 온라인 입학설명회

우리 대학은 지난 6월 30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2015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온라인 입학설명회 및 실시간 입학 상담을 진행했다.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이번 온라인 입학설명회는 학교소개, 학사안내, 온라인 캠퍼스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학생들이 홈페이지 내 입학상담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면 실시간 영상으로 답변을 들 수 있는 질의 응답시간도 마련했다. 설명회는 이완형 입학처장(국제무역물류학과), 권구순 교수(교양학부), 차명희 교수(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가 직접 진행했으며 사회복지학부 이문숙 학부장, 상담심리학과 김지연 교수 등도 출연해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좌측부터) 이완형 입학처장, 차명희 교수, 권구순 교수, 김지연 교수, 이문숙 교수

ACU 소식

De La Salle-ACU 학생 공동 워크숍 개최

아세안사이버대학(ACU) 프로젝트 사무국은 지난 6월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필리핀 마닐라 델라살 다스마리나 대학교에서 'De La Salle-ACU 학생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참여기관 학생들의 이력서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21세기 아세안의 창의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총 35명의 아세안 대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워크숍 기간 동안 학생들은 디지털 활용 및 문제해결 중심의 팀학습프로젝트, 아세안 현안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안 개발 등 아세안 차세대 인재가 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De La Salle-ACU 학생 공동 워크숍에서 참여학생들과의 단체 기념 촬영

외빈방문

주한코트디부아르 대사 일행 본교 방문

6월 9일(화) 실베스트르 쿠아씨 빌레(H.E Sylvestre Kouassi Bile) 주한코트디부아르 대사 일행이 본교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우리 대학의 첨단 교육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주한코트디부아르 대사관 측에서 직접 요청해 이루어졌다. 허묘연 총장의 인사를 받으며 방송스튜디오, 강의실 등을 둘러본 실베스트르 쿠아씨 빌레 주한코트디부아르 대사는 "사이버교육은 인구는 많고,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꼭 맞는 교육방법이다"며 방문 소감을 밝혔다.



허묘연 총장(우측 세번째)과 쿠아씨 빌레 주한코트디부아르 대사(우측 두번째)

문화행사

창작춤극 '신시(神市)-태양의 축제' 관람



신시-태양의 축제를 관람한 교원

우리 대학 교직원들이 지난 5월 22일(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창작춤극 '신시(神市)-태양의 축제'(안무 국수호, 연출 유희성)을 관람했다. 한국무용사에 길이 빛날 역작으로 단군신화를 모티브로 한 창작춤극 '신시(神市)-태양의 축제'는 동이족(東夷族) 문명의 기원인 홍산문화(紅山文化)를 재현한 작품이다.

입학지원자 및 신·편입생, 영화 '은밀한 유혹' 관람



은밀한 유혹을 관람한 신·편입생

6월 4일(목) 명동역 CGV에서 '은밀한 유혹' 시사회가 열렸다. 이번 시사회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처에서 입학지원자 및 신·편입생을 초청한 이벤트로 총 100명에게 초대권을 배부하였다. 영화를 관람한 학생들은 범죄·멜로물로 재탄생한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가 매력적이었다며 이러한 문화충전 기회를 준 학교 측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NEWS

봉사 활동

헌혈증 기증, Blood Donation Day 진행

우리 대학은 지난 6월 13일(토) 헌혈증을 기증하는 'Blood Donation Day'를 진행했다. 교직원·학생들로 이루어진 'SCU WAVE 사회봉사단'은 2008년부터 매월 13일 'SCU 헌혈의 날'로 지정,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6월 14일) 하루 전으로서 대학 측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2014년은 생명 나눔 실천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학 적십자로부터 '헌혈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헌혈증을 기증한 대학원 부원장 정쌍원 교수

외부 행사

(주)코리아세븐 창립 27주년 기념식 개최



'자랑스러운 세븐인상' 시상식 현장

우리 대학과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세븐일레븐이 지난 5월 20일(수) 본교 차이콥스킬홀에서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지난 1년 간 세븐일레븐을 빛낸 '자랑스러운 세븐인상'이 시상되었으며 대표이사 기념사, 케익커팅,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작년 7월 (주)코리아세븐과 '가맹점주 교육기회 확대 위한 학업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좋은 파트너대학으로서 함께 하고 있다.

283기 신입경찰, 본교에서 현장교육 실시



본교 차이콥스킬홀에서 진행된 283기 신입경찰 교육

6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 5일간 우리 대학 차이콥스킬홀에서 283기 신입경찰 현장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에서 지방청 신입 경찰관들은 사건현장 초동조치 요령 등 직무교육과 인권 및 공직윤리 등 인성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날 5일에는 입학설명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완형 입학처장은 군경상담학과 등 서울사이버대학교만의 특화된 교육을 소개하여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교수동정



권구순 교수
국제개발 협력 관련 논문 발표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는 2015년 5월 29일 '2015 국제개발협력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2011~2015)에 대한 성과평가와 제언: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동환 교수
토지시장과 근린상가 분양관련 논문 게재 및 심의위원 위촉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는 2015년 6월 30일 발행된 「대한부동산학회지(대한부동산학회)」 제33권제1호(통권 제40호)에 「VAR 모형을 이용한 토지시장의 가격예측」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같은 호에 「근린상가 분양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 교신저자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5월 12일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3년 임기의 국토교통부 국가공정정보 유통협의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김영민 교수
논문 게재 및 논문 발표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한국항만경제학회에서 2015년 3월 30일에 발행된 「한국항만경제학회지」에 「녹색물류기업 인증이 녹색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은나 교수
논문 발표
청소년복지전공 김은나 교수는 2015년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개최된 'Toward Justice: Culture, Language, and Heritage in Education Research and Praxis'에서 "Acculturation patterns of elit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in South Korea: Implications for human-right educa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지연 교수
온라인 게임 이용에 관한 논문 발표 및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지연 교수는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개최된 '2015년 춘계 한국게임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 : 온라인 게임에 대한 부모 중재 전략」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6월 20일에 발행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에 「자녀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에 대한 부모 중재 전략」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지영 교수
심리적 건강 관련 논문 발표
상담심리학과 김지영 교수는 4월 24부터 4월 25일까지 개최된 '건강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강점 중심의 개입이 심리적 건강에 가장 유익한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현아 교수
탈북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논문 발표
상담심리학과 김현아 교수는 2015년 2월 24일 발행된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에 "A Mediation Effect of Ego Resiliency between Stresses and Mental Health of North Korean Refugees Youth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논문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김한 교수
공감 능력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한 교수는 5월 31일 발행된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행한 「상담 및 심리치료」에 「어릴 적 외상경험이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박병석 교수
탈중화 국가형성 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박병석 교수는 「중앙사론」 제41집(2015년 6월 30일 발행)에 「탈중화(脫中華) 국가형성 연구: 대만의 국제 지위 미정론(未定論)에서 본 국명 정명(正名)과 한계」라는 제목의 학술논문을 게재하였다.



박형원 교수
논문 게재 및 발표
아동복지전공 박형원 교수는 2015년 5월 28일 발행된 한국콘텐츠학회에서 발행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에 「클라이언트 권리옹호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사회복지 과목 이수 성인학습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5월 31일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에서 발행한 「청소년시설환경」에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본 청소년의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대한 질적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2015년 5월 1일과 2일 양일간 개최된 '한국콘텐츠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성인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라는 논문과 5월 29일에서 30일까지 열린 '한국연구학회 전기학술대회'에도 참석, 「여성의 사회자본으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질적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교수동정



박종선 교수
학업성취도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박종선 교수는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에서 2015년 6월 30일 발행한 『교육정보 미디어연구』 21권 2호에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의 이러닝준비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사이버대학에서 학습자 특성 및 학습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3P모델을 활용한 학습분석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두 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하였다.



박태정 교수
위안부 관련 논문 발표
복지시설경영전공 박태정 교수는 2015년 6월 4일과 5일 양일간 개최된 'Seoul International Social Work Conference'에 참가하여 "Historical Evidence of Korean Sex Slavery in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서영수 교수
투자심리 e-Learning 교육 관련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교수는 2015년 3월 31일 아시아유림미래학회에서 발행한 『유라시아연구』에 「한국의 투자심리 e-Learning 교육이 투자만족도에 미치는 실증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심선경 교수
노인요양시설 관련 논문 게재
복지시설경영전공 심선경 교수는 2015년 4월 30일 (사)한국콘텐츠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에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요양보호사의 공공성 인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5월 31일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에서 발행한 『미래사회복지연구』에 「조직공정성이 요양보호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에 대한 동의의 조절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서영 교수
고령자 권리 관련 논문 발표
노인복지전공 이서영 교수는 2015년 3월 7일 개최된 '동양대학복지사회개발연구센터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요개호고령자에 대한 권리옹호와 지역생활지원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5년 5월에는 권금주 교수와 공동으로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의 학회지 『미래사회복지연구』에 "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발전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성태 교수
논문발표 및 게재, 디자인 전시
문화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는 2015년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사)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The 6th 2015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Workshop Series'에서 "The Application of Minecraft to Interactive Digital Art"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5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콘텐츠학회 주관한 2015 춘계 국제디지털디자인 초대전에서 "Gold Clusters"를 경주 신라대학교에서 전시하였으며,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한국디자인문화학회 주관한 2015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하계국제디자인전시회에 "Sharing Point"를 미국 브리지포트대학교(University of Bridgeport)에서 전시하였다. 또한 2015년 6월 30일에 한국컴퓨터게임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에 「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의 감성 키워드 도출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우경 교수
논문 게재 및 저서 출간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SCIE 저널 『Psychiatric Genetics』(5월 발행)에 "Effects of genetic variations in NRG1 on cognitive domain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healthy subjects"라는 제목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가하였다. 그리고 2015년 5월 26일에는 한겨레출판사에서 『아버지의 딸』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이향아 교수
디자인 작품 출품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미국 브리지포트대학교(University of Bridgeport)에서 한국디자인문화학회 주관한 '2015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하계 국제디자인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또한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제12회 부산국제디자인제'에 디자인 작품을 출품하였다.



이희연 교수
학생인권 관련 논문 발표
청소년복지전공 이희연 교수는 2015년 5월 22일 개최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에서 「학교사회복지전문직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수미 교수
외상과 공감 능력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한수미 교수는 5월 31일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행한 『상담 및 심리치료』에 「어릴 적 외상경험이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재웅 교수
남북한 토지임대차제도 관련 논문 게재
부동산학과 이재웅 교수는 2015년 7월 31일 발행된 『송실대 법학논총』 제34집에 북한의 민법과 토지임대법·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등 실질적 민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북한 토지임대차제도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토지임대차제도를 비교 검토한 「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특징과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차명희 교수
디자인 작품 전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는 한국콘텐츠학회 주관하는 'iCCC 2015 Spring International Digital Design Invitation Exhibition'에 "Love"라는 주제로 작품을 출품하고 2015년 5월 1일부터 4일까지 신라대학교에서 전시하였다. 또한 한국디지털디자인협회에서 주최한 'Best Digital Designer Invited International Exhibition 2015'에 "Oriental Mood"이라는 주제로 송실대학교에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시하였다.

여름에 夏자!

이번 호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한 명사들의 저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같은 열정을 지닌 명사들의 이야기를 느껴보세요. 여름에 夏자! 더 발전된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이 여름, 행복한 문화생활을 실천하세요!

BOOK

강수진의 인생수업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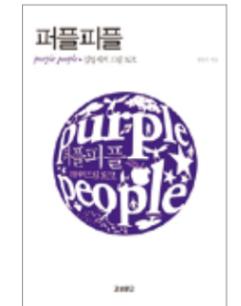


출판사 인플루엔셜 저자 강수진

잠자는 열정을 깨우는 강수진의 인생수업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한국 최고의 지성인과 멘토까지 반하게 만든 강수진의 삶을 통해 기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 어떻게 나를 차별화할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내성적인 성격을 타고난 덕분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던 저자가 어떻게 세계를 감동시키는 발레리나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BOOK

김영세의 드림토크
퍼플피플



출판사 교보문고 저자 김영세

저자가 말하는 『퍼플피플』은 우리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며,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만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해 자유를 만끽할 줄 아는 사람들을 뜻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유튜브의 스티브 첸,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까지 실리콘밸리의 기적을 보여준 혁신가들의 성공스토리를 통해 모범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타고난 재능을 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젊은이들에게 새롭고, 즐겁고, 보다 성취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선사한다.